

2016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교회들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
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

메시지 6

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
(2)

여자 속에 있는 사내아이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수확의 첫열매들

성경: 계 12:1-6, 10-11, 14:1-5

- I. 믿는 이들은 사내아이(죽은 이기는 이들)이거나 혹은 첫 열매(살아있는 이기는 이들)로서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 — 히 11:33, 39-40, 계 12:5-6, 14, 14:1-5, 마 24:39-42, 계 3:10, 눅 21:36.
- II. 여자 속에 사내아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마귀(비난자, 비방자), 사탄, 곧 하나님의 대적을 이긴다 — 계 12:1-6, 10-11.
 - A. 이기는 이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를 이긴다.
 1.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우리는 온갖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,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대답할 수 있다 — 요일 1:7.
 2. 우리가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 명백한 유죄판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빛비춤이 아니라 사탄의 비난이다 — 요일 1:9.
 3.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들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근거가 있는 모든 비난들도 거절해야 한다.
 4.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. 그러나 우리가 보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분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— 마 26:28, 비교 히 10:29.
 5. 우리는 반드시 항상 피를 적용하여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, 우리가 온전한 피 아래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말해야 한다 — 벰전 1:18-19, 행 20:28.
 - B. 그들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긴다.
 1. '증언'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을 말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들이 증언하는 말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— 비교 요 14:30.
 2. 이기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주 선포해야 한다 — 요일 3:8, 히 2:14.
 3. 사탄은 우리가 그와 따지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속한 영적인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— 비교 대하 20:20-22.
 - a.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다는 것은 다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영적인 사실이다 — 빌 2:9-11, 고전 12:3 하.
 - b.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과,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과, 사탄이 그분의 발 아래 짓밟혔다는 것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— 창 3:15, 요 14:30 하, 롬 16:20.
 4. 우리의 증언하는 말은 사탄이 그의 입지를 잃도록 한다 — 약 4:7.
 - C.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.
 1.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,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혼 생명, 곧 사람의 자아와 결합시켰다. 따라서 사탄은 이기려면,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.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혼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한다 — 마 16:23-24, 눅 14:26, 9:23, 욥 42:5-6.

- a.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 우리의 혼, 곧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에 속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기를 원한다.
 - b. 천연적인 역량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역량이며 십자가의 운행에 의해 한번도 처리받지 않은 역량이다.
 - c. 교회의 실패는 사람이 자신의 천연적인 역량을 가지고 온 것에 기인한다.
 - d. 십자가의 목적은 모세와 베드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천연적인 힘과 역량을 처리하여 우리가 감히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— 행 7:23-30, 눅 22:32-34, 벰전 5:5-6.
 - e.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 자신에 의해 살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자신감도 갖지 않을 것이다 — 고전 2:2-4, 빌 3:3, 사 11:2.
2.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, 곧 전제물이 되어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포도주로 만드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— 빌 2:17, 딤후 4:6, 사 9:13.

III. 주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울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신다.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분의 만족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확의 첫 열매들을 훨씬 더 필요로 하신다 — 계 14:1, 4 하.

- A.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림 받는 것이다.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— 눅 21:36, 고후 2:10.
- B.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누림으로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휴거된다.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— 출 23:19 상, 레 23:10, 비교 요 20:17 상.
- C.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성숙에 도달한 이들이다 — 히 5:14-6:1, 고전 2:6, 엠 4:13, 빌 3:15.
 1.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서 변화되는 것이다.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이다 — 롬 12:2, 엠 3:19 하.
 2.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성숙의 필요가 있다.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— 창 1:26, 롬 5:17, 21.
- D.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인 에녹은 이기는 이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될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 — 마 24:37-51, 계 14:1, 눅 21:34-36.
 1.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— 창 5:22-24, 히 11:5-6.
 2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, 즉 주재념지 않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 일을 행하지 않고, 현시대에 따라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— 비교 시 19:12-13, 수 9:14 하, 눅 24:15.
 3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며, 하나님에 따라서 그분의 계시와 인도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을 행하는 것이며, 모든 것을 그분에 의해 하는 것이다 — 롬 8:4, 13-14, 갈 2:2 상, 고후 5:14-15.
 4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, 곧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후 5:4, 9.
 5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이며 주님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것이며, 그분의 지속적인 주입 아래 있는 것이다 — 요일 1:3, 빌 4:6, 고후 3:16, 18.
 6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복된 삼일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영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— 고후 4:13, 유 19-21.
 7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되는 것을 함축한다.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을 함축한다 — 마 16:24-25, 고후 2:13-14.
 8.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— 고후 5:7, 히 11:5-6.
 - a.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— 히 11:1-2, 6, 고후 4:13, 18.

- b.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, 즉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— 히 11:6 상.
 - c.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며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— 요 8:58, 전 1:2.
 - d.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.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한 분, 유일하게 계시는 오직 한 분이셔야 한다. 우리는 결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어야 한다 — 창 5:24, 히 11:5.
 - e.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. 온 우주 안에서 그분이 계시며 우리 모두는 아무 것도 아니다 — 눅 9:23, 막 9:7-8.
 - f. 나는 아무 것도 되지 말아야 한다.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.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— 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” — 갈 2:20.
 - g. 다소의 사울이 회심할 때 주님은 그에게 "나는 예수다"라고 하셨다 — 행 9:5.
 - (1) 주님은 "나는 위대한 "나는 이다"이다. 내가 바로 존재하는 이이다. 너는 반드시 내가 존재하는 이이고 너는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."라고 말씀하신 것이다.
 - (2) 결국 사울은 끝나고 바울이 나왔다 — 행 13:9.
9. 이것이 믿음이다 — “ 아무 것도 갖지 않고, 아무 것도 되지 않고, 아무 것도 보지 않고,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여.” — J. N. 다비.
- a.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히 11:6, 창 15:1, 빌 3:8, 14.
 - b. 에녹이 받은 보상은 생명의 최고의 수준, 즉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다 — 히 11:5 상, 고후 5:4, 롬 8:6, 10-11, 5:17.
 - c. 주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찾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— 시 27:4, 8, 42:1-2, 43:4, 73:25, 119:2, 10.
10.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— 고후 4:13, 눅 1:38, 롬 10:17.
- a. 에녹이 65년을 살았을 때 그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했다(창 5:21), 이 이름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은 "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온다"를 의미한다.
 - b.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므두셀라로 지으면서 므두셀라가 죽을 때, 즉 노아가 육백세가 되던 해에 다가올 홍수의 심판에 대해 예언했다 — 창 7:6, 5:25-29 상.
 - (1) 므두셀라는 187 세에 라멕을 낳았고(25 절), 라멕은 182 세에 노아를 낳았으며(28 절), 노아가 육백세 때 홍수가 왔다 (7:11).
 - (2) 우리가 이 세 인물들을 함께 두면 총 969 년이 되며 그것이 바로 므두셀라가 죽은 나이이다 — 창 5:27.
 - c. 에녹의 예언은 65 세 때에 한 것이며, 그는 분명 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성한 의지에 의해 감동되며 또한 경건하지 않은 인류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배웠음이 분명하다 — 유 14-15.
 - d. 그 후로 에녹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대했으며 이러한 기대는 그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도록 자극하여 밤낮으로 삼백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올라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어 결국 "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" — 창 5:24, 빌 3:14, 비교 아 8:5 상.